

이란전쟁 여파와 동남권 경제 영향

백 충 기 선임연구위원(cgbaek@bnkfg.com)

이 서 진 책임연구위원(lsj17@bnkfg.com)

이란전쟁 여파로 2분기 이후 동남권 경제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생산 감소, 수출물량 급감, 고용시장 위축 등 실물지표 전반의 악세흐름이 빠르다. 중동충격에 취약한 동남권의 경제구조 특성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둔화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란전쟁 과정에서 훼손된 공급망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60일간 협상 과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高 현상 심화도 불안요인이다.

지자체, 유관기관, 금융회사는 피해기업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중요하다. 다만 구조적 취약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전환 컨설팅 지원, 세제 혜택 등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지역경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경제위기마다 충격은 크고 회복은 더딘 동남권의 체질개선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주력산업 고도화, 지식서비스업 육성, 친환경·AI 첨단기업 발굴, 인재양성, 보건·복지체계 강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회복탄력성 제고에 자원배분과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란전쟁 여파로 동남권 경제활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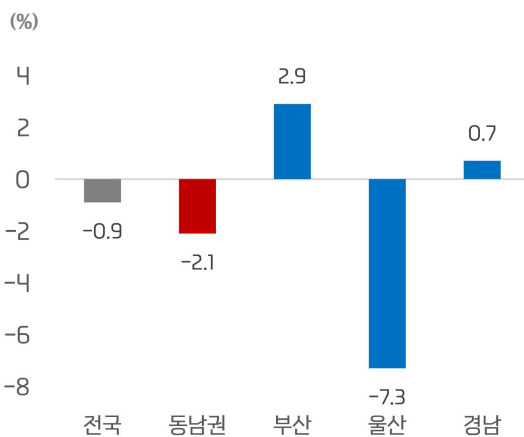
(생산) 26.2분기 들어 부정적 영향 가시화

동남권 제조업 생산은 2분기 들어 이란전쟁 영향이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다¹⁾. 5월중 -2.1%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부진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2.9%), 경남(0.7%)은 증가했으나 울산(-7.3%)이 감소했다²⁾.

업종별로는 기계(16.7%), 금속(11.7%), 조선(5.9%), 철강(4.2%) 등이 증가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석유정제(-21.3%), 화학(-11.3%), 고무·플라스틱(-5.1%) 등 석유 기반 산업군과 자동차(-9.4%)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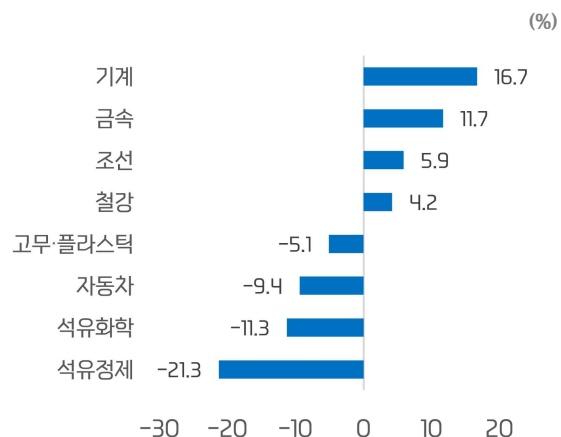
조선, 철강, 금속 등 석유기반 산업군을 제외한 동남권 주력업종의 경우도 시차를 두고 생산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2분기 들어 증가세가 둔화³⁾되는 가운데 이란전쟁 여파로 생산비용 상승, 기자재 수급불안, 전방수요 둔화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6.5월 동남권 제조업 생산 증가율



주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국가데이터처

26.5월 동남권 업종별 생산 증가율



주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국가데이터처

- 1) 동남권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26.3월 3.2%에서 26.4월 -0.6%로 감소하며 26.2분기 들어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 한편 3월의 경우 명절 기저효과도 일부 있으나 既 계약물량 생산 등이 반영되며 건조한 생산 증가세 시현
- 2) 26.5월 경제권역별 제조업 생산은 충청권(8.7%), 대경권(6.2%)은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동남권(-2.1%), 수도권(-4.9%), 호남권(-5.7%)은 부진. 전국의 경우 -0.9% 감소
- 3) 동남권 주력산업(석유제품군 제외) 생산 증가율(%), 26.4월 → 26.5월)
 - 조선 : 14.3 → 5.9
 - 금속 : 19.5 → 11.7
 - 철강 : 10.1 → 4.2

(수출) 26.3월 이후 수출물량 급감

동남권 수출물량은 3월 이후 두 자릿수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5월 중에는 -22.0% 감소⁴⁾하며 21.1월(-25.3%) 이후 6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부산(12.2%)⁵⁾은 늘어났으나 울산(-21.2%)과 경남(-33.5%)이 크게 부진했다.

경제권역 중에서는 동남권(-22.0%) 수출물량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호남권(-17.7%), 충청권(-17.6%), 수도권(-13.2%) 순으로 부진했으나 대경권(3.5%)의 경우 증가세를 시현했다.

품목별로는 동남권 10대 주력 수출품목 대부분이 감소했다. 특히 석유화학합성원료(-54.3%), 기초유분(-33.5%), 석유제품(-21.0%), 합성수지(-19.1%) 등 석유관련 제품의 감소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선박(-47.3%), 자동차(-6.0%), 철강관및철강선(-5.5%) 등의 수출물량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5월중 9.9% 늘어나며 증가세가 지속됐다⁶⁾. 이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석유제품 수출단가 상승, 고환율에 따른 원화 환산가치 상승 등 단기적 요인에 기인⁷⁾하고 있다. 수출물량 축소 등을 감안할 때 지역의 수출 펀더멘털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남권 수출물량 증가율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동남권	12.6	-2.6	-13.9	-19.8	-22.0
부산	12.2	-2.1	2.2	7.3	12.2
울산	17.9	-3.6	-12.6	-33.4	-21.2
경남	-17.4	2.8	-25.0	45.9	-33.5

주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26.5월 동남권 10대품목 수출물량 증가율

주 : 물량기준,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전국은 26.5월중 수출물량은 전년동월대비 -17.9% 감소

5) 부산은 26.5월중 수출물량은 자동차(-40.9%)가 감소했으나 철강판(6.8%), 철강관및철강선(8.1%) 등이 늘어나며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시현

6) 다만 동남권 수출금액 증가율도 4월 15.0%에서 5월에는 9.9%로 둔화

7) 동남권 석유제품의 경우 26.5월중 수출물량(-21.0%)은 감소했으나 수출금액(56.4%)은 급증

(고용) 전통서비스업·건설업 감소폭 확대, 제조업 둔화

동남권 고용시장은 26.4월 이후 중동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이다. 3월에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4.6만명 증가했으나 4월은 1.2만명, 5월은 0.6만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남(1.7만명), 울산(0.6만명)이 늘어난 데 반해 부산은 1.7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1.4만명), 40대(-0.4만명)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건설업이 부진한 가운데 재취업을 흡수하던 숙박·교육·음식점 등 생활서비스업 활력약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경기둔화와 AI발전 등이 맞물리면서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 인력 효율화 흐름이 강화된 것도 취업자수 증가의 제약으로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2.1만명), 건설업(-1.2만명)이 감소하고 제조업(0.3만명)은 크게 둔화됐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건설업은 각각 연속 7개월과 연속 5개월 취업자가 감소했으며, 제조업의 경우도 0.3만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취업자수 증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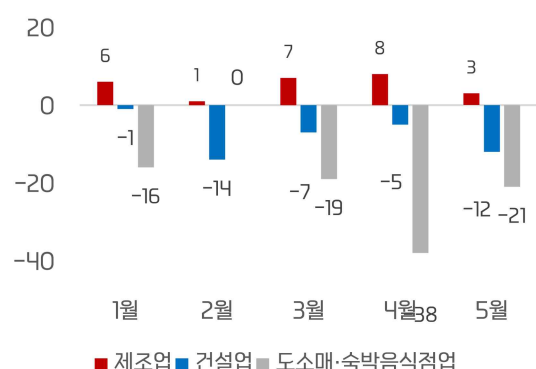
(천명)

구분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2026.1	58	20	0	38
2026.2	54	16	3	35
2026.3	46	-5	12	39
2026.4	12	-21	7	26
2026.5	6	-17	6	17

주 :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료 : 국가데이터처

동남권 업종별 취업자수 증감

(천명)



주 :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료 : 국가데이터처

중동충격에 취약한 RISK 경제구조가 원인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동남권은 하반기에도 이란전쟁의 부정적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쟁기간 동안 훼손된 생산·물류·금융 여건 정상화까지의 시차(Time-lag) 등 산재한 리스크 요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동지역 원유공급 차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걸프 해역에 대기하던 원유물량의 공급차질 문제는 일부 완화됐으나 전쟁 과정에서 중동지역 원유 생산 시설이 상당부분 파괴됐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이 재개되더라도 원유선적, 해상운송, 항만처리, 보험료 재산정 등 제반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공급망 정상화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된다⁸⁾.

이는 동남권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원유조달 불안은 기업의 생산계획에 차질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납기 지연, 재고 부담 등의 경로를 통해 재무적 부담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의 경제·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더욱 걱정스럽다. 동남권은 중동발 충격에 취약한 정유·석유화학산업 집적, 높은 중동원유 의존, 항만물류 허브, 수출 주도형 성장지역 등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 부정적 여파가 타 경제권역 보다 오랜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란전쟁 종전 합의 이후 예상되는 지역경제 주요 리스크

주요 리스크	내용
원유공급/물류 리스크	원유 선적, 해상운송, 항만처리, 보험료 조정에 시차
생산 리스크	원자재, 부품 조달 불안으로 생산계획 정상화 지연
금융 리스크	비용, 재고, 납기 부담이 현금흐름과 운전자금 부담으로 전이
가격 리스크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원가 전망 불확실성으로 작용
수요 리스크	글로벌 경제 더딘 회복으로 소비, 투자, 수출 지연

8) Reuter는 지난 26.6.15일 기사에서 이란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 회복은 최소 60~90일, 파괴된 생산시설 복구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

중동충격에 취약한 R.I.S.K 경제구조

(1)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ncentration(정유 · 석유화학 산업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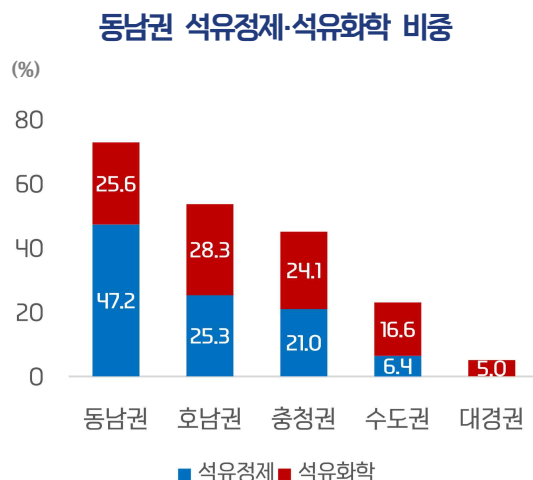
동남권은 국내 정유 · 석유화학 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중동발 공급 충격과 유가 변동성에 다른 지역보다 더욱 취약하다. 2024년 생산액 기준 국내 석유정제 생산의 약 47.2%, 석유화학 생산의 약 25.6%를 차지하고 있다.

종전합의 이후에도 원유 생산, 선적, 운송, 계약가격 반영 등에 시차가 발생하면서 지역 원유공급 정상화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유·석유화학 산업 비중이 높은 동남권은 원료투입 차질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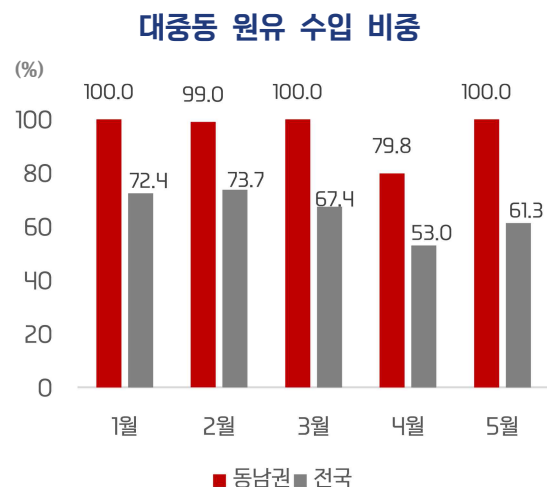
(2) Import Dependence on Middle Eastern Oil(중동産 원유수입 의존도)

동남권은 국내 제조업 석유소비의 30.2% 비중을 차지할만큼 원유공급의 중요성이 높다. 특히 원유수입의 96%가 중동산이어서 의존도가 크게 높다. 전국의 경우 중동산 비중은 66% 수준이다.

동남권은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동산 원유의 공급차질은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과 후방산업의 생산차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경제 하방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 : 2024년 생산액 기준
자료 : 국가데이터처



주 : HSK 270900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Shipping & Port Logistics Exposure(해운 · 항만산업 발달)

동남권은 세계적 해운 · 항만물류 중심지이다. 2025년 기준 부산항은 세계 7위 컨테이너항이자 세계 2위 환적항의 높은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내 환적물량 중 약 97.8%, 컨테이너 약 77.5%를 부산항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선사들은 종전합의 이후에도 항로 안정성을 완전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운항을 보수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입 원자재와 수출 제품의 이동이 제한될 경우 생산투입과 제품출하가 모두 제약되어 지역의 해운·항만산업 부가가치 창출이 부진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우려된다.

(4) Key Export-Oriented industry cluster(핵심 수출 중심지)

동남권은 수출 의존도가 55.5%(2024년 기준, 전국평균 36.4%)에 달하고 있어 수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동남권 다음으로 충청권(54.1%), 호남권(54.1%), 호남권(40.8%), 대경권(32.1%), 수도권(29.2%) 순으로 높다.

이란전쟁이 종전합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수요 둔화는 빠르게 완화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외바이어 재고 조정, 발주 재개, 투자심리 회복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출중심 지역인 동남권 경제의 빠른 반등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실적

파급경로별 동남권 수출산업 영향

(만TEU, %)

순위	항구명(지역)	처리량	증가율	경로	동남권 수출산업 영향
1	상하이항(중국)	5,506	6.9	유가상승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 원가 부담
2	싱가포르항(싱가포르)	4,466	8.6		
3	닝보-저우산항(중국)	4,387	11.6	환율상승	원자재, 부품 수입비용 증가
4	선전항(중국)	3,541	6.0		
5	칭다오항(중국)	3,289	6.5	물류차질	자동차, 기계, 부품 수출납기 부담, 재고 및 운전자금 증가
6	광저우항(중국)	2,768	6.2		
7	부산항(대한민국)	2,488	2.0	수요둔화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수출 둔화
8	톈진항(중국)	2,403	3.2		

주 : 2025년 기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알파라이너

미국-이란 종전 합의했으나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

지난 6.17일 미국-이란은 종전에 합의하는 14개 조항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금년 2.28일부터 시작된 양국의 무력충돌이 106일 만에 종전 합의에 이르면서 전세계는 안도와 함께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14개 합의안의 실제 이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로 지목된다. 향후 60일간 협상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운영방식, 핵물질 처리, 이란제재 해제 등의 쟁점은 세부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이란 강경파와 이스라엘의 돌발 군사행동 등도 불안요인으로 지목된다.

미국-이란 14개 합의안 조항별 주요 내용

구분		내용
1조	군사행동 중단	• 모든 전선(레바논 포함)에서 군사작전 즉각적 · 영구적 종료
2조	상호존중	• 상호 주권 및 영토 보전 존중, 내정 불간섭
3조	최종합의	• 최종 60일 이내 최종합의 협상(상호합의시 협상기간 연장 가능)
4조	미국의무	•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 및 기타 제한조치 해제 •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 이란 내 미군 병력 철수
5조	이란의무	• 60일간 호르무즈 통행료 무상 • 상업선박 안전한 통행 보장, 기뢰 제거 등 안전조치 실시
6조	경제재건 지원	• 미국 및 역내 파트너 공동 이란 재건 자원 보장(3,000억 달러) • 이란 재건 및 경제개발 계획 수립
7조	對이란제재 종료	• UN 안보리 제재,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재 • 미국 1차 · 2차 제재 단계적 종료
8조	핵무기 포기	• 이란 핵프로그램(핵무기 획득 · 개발 · 생산) 중지 재확인 • 농축 우라늄 처리방안 합의, IAEA 감독 하에 처리
9조	현상유지	• 최종협상 완료 전까지 이란 핵 프로그램 현 상태 유지 • 최종협상 완료 전까지 미국 신규 제재 부과, 추가 병력 배치 금지
10조	원유수출 허용	• 미국은 이란산 원유, 석유제품, 파생제품 수출을 위한 금융, 보험, 운송에 대한 제재 면제(Waiver) 허용
11조	동결자산 해제	• 이란 해외동결 자산 해제, 즉시 사용을 위한 미국의 허가 및 승인
12조	공동 이행점검	• 공동 집행기구 설치, 이행 준수를 감시하기 위한 집행메커니즘 합의
13조	선행조건 이행	• 제1조(휴전), 제4조(봉쇄해제), 제5조(호르무즈 개방), 제10조(원유수출), 제11조(동결자산 해제) 이행을 전제로 최종협상 시작
14조	국제법적 보증	• 최종합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UNSCR)로 구속력 있는 결의

자료 : White House, 미국 정부 의회 제출 문서를 인용한 국내외 언론보도 등 참고

고환율·고물가·고금리 환경도 심화

이란전쟁 영향으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산업생산 감소, 소비심리 악화, 투자 위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경제 전반의 하방압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동남권 취약계층과 한계기업은 충격에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커 더욱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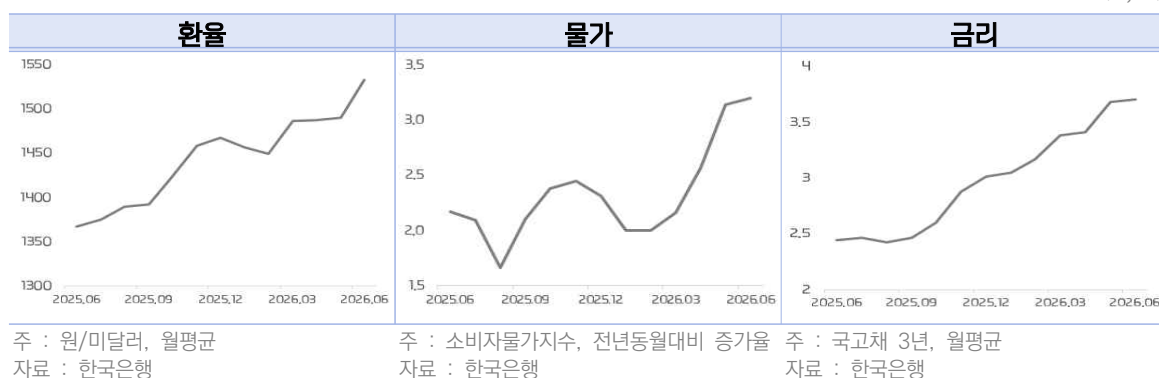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의 경우 26.6월중 1527.3원까지 상승하며 IMF 외환위기⁹⁾ 이후 처음으로 월평균환율 1,500원대를 넘어섰다. 국제유가 상승,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달러가치가 급등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까지 맞물린 데 기인한다.

물가상승 압력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26.6월중 3.2%를 기록하며 23.12월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원유 공급망 차질이 제품 생산비, 물류비, 공공요금 등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란전쟁 직전인 1월 2.0%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으나 5개월 만에 1.2%p 급등하며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고환율, 고물가 상황이 심화되면서 시장금리도 상승세가 가파르다.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시장금리는 지난 1월 3.0%에서 금년 6월 3.8%로 5개월 만에 0.8%p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중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고금리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¹⁰⁾.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동향

(원, %)



9)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1~3월 월평균 환율이 1,500원대 상회(1월 1706.8원, 2월 1623.1원, 3월 1505.3원)

10) Goldman Sachs, J.P Morgan 등 주요 IB와 자본시장연구원 등 국내 주요기관 전망에 따르면 26년 하반기 중 한국은 기준금리 인상 횟수는 1~2회, 인상 폭은 50bp로 전망

신속한 단기대응, 중장기적 관점의 회복탄력성 강화

이란전쟁이 종전합의를 했지만 동남권 경제를 둘러싼 불안감은 여전하다. 공급망 회복 지연, 고환율·고물가·고금리, 60일간 합의 과정의 불확실성 등이 동남권 산업 생태계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 기업들이 이번 파고를 견딜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과 지원이 중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며 동남권 기업활력이 크게 약화된 만큼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지역 경제주체 모두 예전 위기 때의 대응 범위와 속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해법마련이 요구된다.

지자체는 이란전쟁발 충격이 큰 피해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 위기를 견딜 수 있도록 긴급경영자금 지원, 위험 단계별 지원시스템 구축 등 촘촘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연쇄도산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적 취약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 금융지원, 세제지원, 컨설팅 제공 등으로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회사는 기업들이 충격에 버틸 수 있게 대출만기 연장, 운전자금 지원, 매출 채권 기반 담보대출 확대, 환헤지 상품 제공 등 여신 및 외환지원의 속도를 높이고 개별기업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기업도 스스로 자금유동성 확보, 매출처 다각화, 정부지원 프로그램 활용 등 자체 노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이는 전략도 중요하다. 동남권 경제가 위기상황마다 타 경제권역보다 부정적 영향은 크게 받고 회복세는 더뎠던 과거 패턴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 지역의 체질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전반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특히 산업경쟁력 회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궤도로 빠르게 복귀하기 위한 ‘경제적 탄력성’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대외충격시 지역사회가 위기를 견디고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탄력성’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주력산업 고도화, 지식서비스업 육성, 친환경·AI 첨단기업 발굴 등으로 경제인프라를 강화하고 인재양성, 보건·복지체계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전국 성장궤도와 격차 축소하기 위한 혁신적 노력 중요

동남권 경제는 대외충격 때마다 전국보다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았다. 금융위기(2008년)와 코로나(2020년) 시기 동남권은 각각 0.0%, -5.7%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같은기간 전국이 각각 0.8%, -0.7% 성장한 것과 비교할 때 부진했다.

특히 동남권 경제는 대외충격 이후의 회복력이 미약한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19년중 동남권은 연평균 1.9% 성장하며 전국(3.4%) 대비 절반 수준의 성장에 그쳤다. 코로나 이후(2021~25년)에도 전국(2.4%)과 비슷한 2.6% 성장에 그치면서 오랜기간 낮아진 경제활력을 만회하지 못했다. 지역 경제·산업구조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이란전쟁도 비슷한 양상이 예상된다.

전국과의 성장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전국이 매년 2% 성장한다고 가정할 때 동남권이 5년 이내에 전국평균 성장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매년 6.7%의 초고성장이 필요하다. 10년 이내 복귀를 목표로 가정한다고 해도 4.3%의 고성장이 요구될 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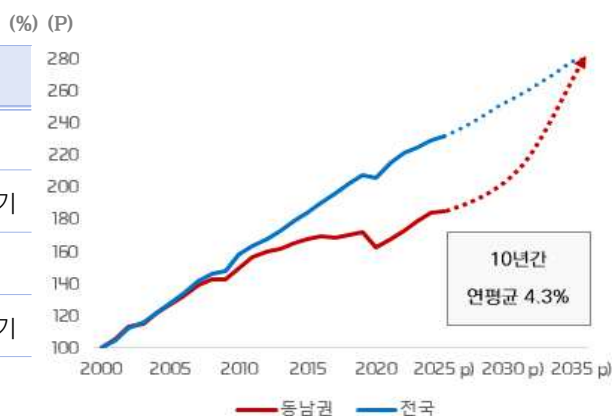
현재와 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최악의 경우 지역소멸 상황까지도 우려된다. 대외충격에 강하고 빠른 회복력을 가진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2000년 이후 동남권 연평균 경제성장률

구분	동남권	전국	비고
00~08년	4.5	4.9	안정기
09년(금융위기)	0.0	0.8	대외 충격기
10~19년	1.9	3.4	회복기
20년(코로나)	-5.7	-0.7	대외 충격기
21~25년	2.6	2.4	회복기

주 : 연평균 성장률은 CAGR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BNK경영연구원

전국 및 동남권경제 누적성장 추이



주 : 2000=100
자료 :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BNK경영연구원